

<중국 온라인 미디어에서 한국어 사용

- 종결어미 ‘思密達(습니다)’를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윤상미(카톨릭대)

■ 개요

발표논문 “중국 온라인 미디어에서 한국어 사용”은 중국 온라인 매체에서 한국어 차용표현의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한국어 종결어미인 ‘思密達(습니다)’의 사용 확산은 한류문화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예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그 표기 방식과 사용 기능을 논의한다.

■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

1.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思密達(습니다)’사용 확산

한국 드라마를 통해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어 종결어미 ‘思密達(습니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에서의 본래 의미나 역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몇 가지 일괄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영상 자막과 설명글에서는 주로 ‘한국’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며, 통신 ID로서는 ‘한국’과 관련 없이 그저 한국인처럼 말하기 위해 단순하게 사용한다.

2. ‘思密達(습니다)’표기 방식

온라인 미디어에서 종결어미 ‘思密達(습니다)’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로 표기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영상 자막이나 설명글에 한글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통신 ID의 경우 한번만 입력하면 상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중국인의 경우 해당 표현을 복사해서 주로 사용한다. 영어 표기는 중국어의 외래어 음차용의 방식으로 표기하는데 이 또한 통신 ID에 주로 사용한다. 한자 표기는 중국 누리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 방식이며 통신 ID와 더불어 영상 자막이나 설명 등에 두루 사용된다.

3. ‘思密達(습니다)’사용 기능

한국어 종결어미 ‘思密達(습니다)’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한다. 한 가지는 접미사나 첨어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경어가 많지 않은 중국어에서 손윗사람에게 ‘思密達(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임말 기능을 부여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별다른 의미 없이 한국인처럼 발화하고자 중국어 문장 끝에 ‘思密達(습니다)’를 붙이거나 친근하게 말하기 위해 문두나 문간에 첨가해 사용하기도 한다.

‘思密達(습니다)’가 의미어로 사용될 때는 두 가지 뜻으로 발현되는데, 그 하나는 ‘한국,’ ‘한국인,’ ‘한국적인’이라는 의미로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국인의 외모, 한국 문화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된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기능인데 한국어 종결어미 ‘思密達(습니다)’가 ‘한국’이

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좋다’라는 형용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며, 동시에 그와 정반대로 중국어의 욕설에 붙여 변형된 욕설이나 비속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 논의

1. “‘思密達(습니다)’가 중국 온라인 미디어에서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연구한다.”

발표자는 서두에서 ‘思密達(습니다)’의 확산 정도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 대한 논의나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표현의 중국에서의 사용 정도와 사용 동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思密達(습니다)’의 사용은 재미있고 친근한 발화 분위기 연출한다.”

발표자는 논문 전반에 걸쳐 온라인 미디어 상에서 ‘思密達(습니다)’의 사용이 발화 분위기를 밝고 친근하게 연출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발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부드러워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해당 어미의 기능 논의에서 중국어 욕설에 덧붙여 변형된 욕설이나 비속어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그 차이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 “통신언어로 사용할 때 문장 안 여러 곳에 위치하여 어투를 부드럽게 만든다.”

발표자는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인처럼 발화하기 위해서 ‘思密達(습니다)’를 중국어 문장 끝에 붙이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말하기 위해 문두나 문간에 첨부해서 사용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에서 ‘思密達(습니다)’ 사용 기능을 살펴 보면, 문두나 문간에 오는 경우는 주로 ‘한국’과 연관된 의미와 더불어 긍정 및 부정의 뜻을 함유하는 의미어로 사용하고, 문미에 오는 경우에는 경어로 또는 특정한 의미 없이 한국어처럼 발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능어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두나 문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의미어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언

자료 수집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맺음말에 제시한 성별별 분포와 세대별 분포 뿐만 아니라 수집 기간, 수집 자료의 양적 분석, 연령대 및 사용 분야별 분포 등이 더해진다면 좀 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차용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발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